반도체 자립을 위한 대규모 보조금과 기술 업그레이드 지속

Hana China Weekly | 2025.12.19

Analyst 백승혜 sh_baek@hanafn.com | Analyst 송예지 yeajisong@hanafn.com | RA 안기량 giryangan@hanafn.com

주요 이슈 점검

반도체: 중국 정부 최대 100조원 규모의 추가 보조금 검토 중

- 12/16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 보조금과 금융 지원을 포함해 2000억~5000억위안(약 42조~104조원) 규모의 추가 정책 패키지를 검토 중. 최대치가 현실화될 경우 단일 국가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이 될 가능성. 이는 미국이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을 통해 집행 중인 지원 규모에 근접하는 수준. 이번 투자 구상은 중국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일명 반도체 빅펀드) 1·2·3기를 통해 이어져 온 기존 반도체 육성 정책과 비교해 지원 범위가 AI 모델과 AI 서버, 데이터센터·전력·네트워크 인프라까지 확장된 형태로 거론되고 있음. 기존 빅펀드가 파운드리·메모리 등 제조 기반 확충과 장비 국산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정책 지원 대상은 전방위 패키지 형태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반도체: 중국 자체 개발 EUV 장비 시제품 테스트 중으로 추정

- 12/17 로이터는 중국 선전의 연구시설에서 올해 초 EUV 장비의 시제품이 완성되어 시험 가동하고 있다고 보도. 해당 시제품은 다수의 ASML 출신 중국계 엔지니어와 과학자를 주축으로 ASML의 EUV 장비를 역설계해 제조한 것으로 추정. 중국 정부는 해당 시제품을 사용해 칩을 양산하는 시기를 2028년으로 설정해 중국 노광장비 기술 개발 속도에 대한 과거 시장의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 중인 상황으로 추측. 중국의 EUV 장비 시제품 개발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동안 강조해온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자립'이라는 목표 아래 지난 6년간 극비리에 진행되어 왔음.

자율주행: 중국 공신부, 완성차 모델에 L3급 조건부 자율주행 시범 운행 허가 시작

- 12/15 공신부는 2개 양산 완성차 모델에 L3급 조건부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처음으로 허가. 해당 2개 모델은 장안자동차의 Deepal SL03, BAIC의 ARCFOX Alpha S 모델로 베이징과 충칭의 지정 구역(도심 정체 구간과 고속도로)에서 도로 주행 시범에 들어갈 예정. 운행 조건은 지정 차선, 속도 제한(대략 50~80km/h)을 충족해야 하며, 교통 혼잡 시 등 매우 좁은 운행 영역 안에서만 L3 기능 사용이 가능. OEM이 도로 테스트용 L3 자율주행 라이선스를 받은 사례는 있으나 특정 양산 모델에 대한 테스트 허가는 처음으로 이는 중국의 L3급 자율주행이 테스트 단계를 넘어 상용화 단계로 진입이 시작됐음을 시사.

반도체

반도체: 중국 정부 최대 100조원 규모의 추가 보조금 검토 중

- 12/16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 보조금과 금융 지원을 포함해 2000억~5000억위안(약 42조~104조원) 규모의 추가 정책 패키지를 검토 중. 최대치가 현실화될 경우 단일 국가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이 될 가능성. 이는 미국이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을 통해 집행 중인 지원 규모에 근접하는 수준. 이번 투자 구상은 중국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일명 반도체 빅펀드) 1·2·3기를 통해 이어져 온 기존 반도체 육성 정책과 비교해 지원 범위가 AI 모델과 AI 서버, 데이터센터·전력·네트워크 인프라까지 확장된 형태로 거론되고 있음. 기존 빅펀드가 파운드리·메모리 등 제조 기반 확충과 장비 국산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정책 지원 대상은 전방위 패키지 형태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반도체: 중국 자체 개발 EUV 장비 시제품 테스트 중으로 추정

- 12/17 로이터는 중국 선전의 연구시설에서 올해 초 EUV 장비의 시제품이 완성되어 시험 가동하고 있다고 보도. 해당 시제품은 다수의 ASML 출신 중국계 엔지니어와 과학자를 주축으로 ASML의 EUV 장비를 역설계해 제조한 것으로 추정. 중국 정부는 해당 시제품을 사용해 칩을 양산하는 시기를 2028년으로 설정해 중국 노광장비 기술 개발 속도에 대한 과거 시장의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 중인 상황으로 추측. 중국의 EUV 장비 시제품 개발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동안 강조해온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자립'이라는 목표 아래 지난 6년간 극비리에 진행되어 왔음.

비렌 테크놀로지(비상장): 홍콩 IPO 진행 예정

- 12/16 로이터는 내년 1월 AI 반도체 스타트업 비렌 테크놀로지(Biren Technology)가 홍콩거래소 IPO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 비렌은 홍콩에서 최대 3억 7,250만주를 발행할 계획이며 57명의 주주가 총 8억 7300만주의 중국 본토 비상장 주식을 홍콩 주식으로 전환할 예정. 현재 비렌의 기업가치는 155억위안으로 이번 IPO를 통해 3억 달러(약 21.6억위안)를 조달한다는 계획. 비렌은 중국 AI 업계 선발주자인 센스타임의 총재였던 장원과 퀄컴과 화웨이 등을 거친 자오궈팡이 2019년 설립하였으며 엔비디아의 첨단 AI 프로세서 H100 성능에 필적하는 BR100 칩을 공개해 주목받는 기업.

무어스레드(688795.SH): 상장 후 강한 매수세에 시가총액 4,000억 위안 돌파

- 중국 GPU 유니콘 Moore Threads는 상장 직후 강한 랠리를 이어가며 5거래일 만에 시가총액 4,000억 위안 돌파, 커촹반 시장 시총 4위로 상승. 이에 대해 Moore Threads는 공시를 통해 최근 주가가 급등함에 따라 단기적 과열에 따른 주가 하락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고 경고.

화웨이(비상장): Mate 80 출시 2주만에 중국 내 점유율 1위

- 캐나다 반도체 분석업체 테크인사이츠에 따르면, 화웨이의 메이트 80 프로 맥스에 적용된 기린 9030 프로세서는 SMIC가 기존 7나노 공정의 '확장된 진화형'인 N+3 공정을 활용해 제조됐다고 보도. N+3 공정이 의미 있는 집적도 개선을 이뤘다고 평가하면서도, 전반적인 기술 수준은 여전히 TSMC와 삼성전자의 선도 공정에 뒤처져 있다고 지적.
- 12/13 화웨이는 플래그쉽 스마트폰 Mate 80 출시 2주만에 주간 점유율 1위 기록. 48주/49주차 점유율 27.8%, 22.89%로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 등 경쟁사를 제치고 상위권을 유지.

MetaX(688802.HK): 상장 첫날 급등, GPU 기업에 대한 높은 관심 확인

- 12/17 상하이거래소 상장 첫날 급등세를 시현. 중국의 반도체 및 인공지능 자립 추진에 대한 낙관론 속에서 Moore Threads를 이어 상장한 두 번째 중국 GPU 업체로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 12/17 MetaX는 공모가 대비 693% 상승 마감.

자율주행

자율주행: 공신부, 완성차 L3 자율주행 조건부 허가

- 12/15 공신부는 중국 최초의 소비자가 구매하는 일반 양산 완성차에 L3급 조건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진입 허가를 공식 발표. 도심 정체 구간과 고속도로에 각각 적용되는 두 개 모델(장안자동차 Deepal SL03, BAIC ARCFOX Alpha S)은 베이징과 충칭의 지정 구역에서 도로 주행 시범에 들어갈 예정. 지정 차선, 속도 제한(대략 50~80km/h)을 충족해야 하며 교통 혼잡 시 등 매우 좁은 운행 영역 안에서만 L3 기능 사용이 가능. OEM이 도로 테스트용 L3 자율주행 라이선스를 받은 사례는 있으나 판매용 접근 허가는 처음으로 이는 중국의 L3급 자율주행이 테스트 단계를 넘어 상용화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
- 샤오펑(9868.HK)은 12/16 광저우시에서 L3급 자율주행 라이선스 획득, 상시 도로 테스트에 본격 착수. 해당 면허는 광저우시 내 지정된 스마트 커넥티드카(ICV) 테스트용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에서 '조건부 자율주행(L3)' 테스트를 수행하는 데 활용될 예정.
- BYD(1211.HK)는 12/17 중국 현지 매체는 선전시 교통 당국과 협력해 본사 소재지인 선전에서 양산 준비 단계의 L3 자율주행 내부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보도. BYD는 현재까지 선전 지역의 개방된 고속도로와 간선도로에서 실제 도로 기준 누적 15만 km 이상의 L3 자율주행 검증을 완료했으며, 해당 테스트는 우천 환경, 야간 주행, 도로 공사 구간 등 다양한 실제 주행 시나리오를 포함.
- 12/16 화웨이 전기차 동맹 HIMA가 중국 선전에서 내부적으로 L3 자율주행 베타 테스트 시행. 이번 파일럿 테스트는 기존의 R&D 중심 테스트와 달리, 실제 도로 환경과 실제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L3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성과 제품 성숙도를 검증하는 것이 목적으로 국가 차원의 자율주행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로 사용될 예정.

로보센스(2498.HK): 동펑 닛산으로부터 라이다 수주 확보

- 12/15 로보센스는 닛산의 중국 합작사로부터 대규모 주문을 확보했다고 발표. 닛산과 동펑자동차의 합작사인 동펑 닛산에 디지털 라이다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힘. 이번 계약에 따라 로보센스는 동펑 닛산의 여러 차종에 라이다를 공급하게 되며, 총 주문 물량은 약 100만 대 규모이고, 실제 납품은 2026년부터 시작될 예정.

Seyond(2665.HK): 니오 외 고객사 확보 본격화

- 중국 라이다 업체 Seyond가 광저우자동차로부터 라이다 수주를 확보하며 최대 고객사인 니오(전체 매출의 86%)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 Seyond는 자사 라이다 제품이 탑재된 첫 번째 광저우자동차 모델이 2026년에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힘. 현재까지 Seyond는 중국 내 14개 완성차 업체 및 스마트주행 기업으로부터 수주를 확보한 상태.

허사이테크(HSAI.US): 글로벌 라이다 선두기업으로 인정

- 12/15 발간한 모건스탠리의 글로벌 휴머노이드 보고서에서 라이다 업체 중 유일하게 25개 글로벌 선두기업 명단에 포함.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핵심 밸류체인과 기술 경쟁력을 기준으로 주요 기업들을 선별했으며, 허사이테크는 라이다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양산 역량을 인정받았음. 2026년 1월 6~9일 CES에서 L3 자율주행용으로 사용 가능한 라이다 공개를 예고하였으며 내년 양산 예정인 ATX 업그레이드 버전은 현재 400만개 선주문 확보한 상태라고 밝힘.

플랫폼/테크

플랫폼: Zhipu AI와 미니맥스 상장 준비 본격화

- 12/17 텐센트 뉴스에 따르면 중국 AI 육룡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LLM 스타트업인 Zhipu AI와 미니맥스가 중국 증권감독위원회의 해외 상장 등록 승인을 획득, 홍콩거래소 상장 심사에 참여. 다만 이 부분이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음. 홍콩 증시가 12/20부터 크리스마스 휴장에 들어가는 점을 감안할 때 1월 홍콩 증시 상장 예정일 것으로 추정. 반면 Zhipu AI의 이후 상장 일정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

플랫폼: 하이테크 우대 세율 철회 루머 확산

- 12/16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우대 세율 철회 관련 정보가 확산되며 홍콩에 상장된 관련 기업 주가 낙폭 확대. 다만 관련 소식은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닌 루머로 확인. 우대 세율 철회가 세무 관련 불확실성 속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며 12/16 알리바바(-3.0%), 징동(-2.3%) 등 플랫폼 기업 주가 하락 마감.

알리바바(BABA.US): AI 분야 유의미한 성과 창출

- 12/11 블룸버그는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는 내년 봄 출시가 예상되는 'Avocado'라는 코드명의 신규 모델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알리바바의 Qwen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 메타가 어떤 버전의 Qwen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미국 기업들도 알리바바 Qwen을 활용해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12/12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Quark AI 스마트 안경은 Luxshare 공장 내에 신규 조립 라인이 추가되었으며, 생산능력이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

바이트댄스(비상장): 더우바오 AI 생태계 확장, 스마트폰 수요 견조

- 바이트댄스와 ZTE가 협력한 더우바오 AI 스마트폰은 12월 초 출시 이후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요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ZTE 온라인 스토어는 12/17 초기 물량 소진 및 수요 초과 가능성에 해당 기기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이른바 'F 코드(프렌드 코드)' 신청을 일시적으로 재개. 해당 코드는 3,499위안 가격의 단말기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함. 더우바오 대규모언어모델(LLM)의 사용량이 올해 들어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힘.

텐센트(0700.HK): AI 조직 개편 및 전략 강화

- 12/17 텐센트는 AI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 오픈AI 출신 연구원 빈센스 야오 순위를 AI 총괄자로 임명. 대규모 언어모델(LLM) 개발을 포함한 텐센트의 새로운 AI 인프라 구축 작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

Unitree(비상장): 휴머노이드 앱스토어 출시, 사용자 편의성 증대

- 중국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계의 App Store 출시. 유저는 댄스, 업무 등 로봇의 학습된 모델을 업로드할 수 있으며, 타 모델의 기능 또한 로봇에 즉시 적용 가능.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해 휴머노이드 로봇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로봇이 수행할 동작을 템플릿처럼 선택이 가능함. 개발자와 사용자들은 자신이 만든 훈련 데이터셋이나 동작 시퀀스를 업로드하고, 이를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음. 단순한 시연을 넘어, 로봇 동작을 하나의 콘텐츠처럼 유통하는 구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

전기차/이차전지

샤오미(1810.HK): 가전·AI·EV 전방위 사업 확장 가속

- 12/11 샤오미는 우한에 첫 가전 스마트 팩토리를 준공하고 첫 시스템 에어컨 제품을 공식 출시했다고 발표. 이를 통해 가전 포트폴리오의 본격적 확대와 생산 및 품질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가 부각됨.
- 12/17 샤오미는 딥시크, 문샷 AI, 앤트로픽, 오픈AI의 최신 시스템과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 MiMo-V2-Flash를 공개하고 오픈소스로 전환. 샤오미는 MiMo-V2-Flash가 대부분의 추론 벤치마크에서 문샷 AI의 Kimi K2 Thinking 및 딥시크 V3.2 Thinking과 유사한 성능을 달성했으며, 고품질의 개방형 응답을 위한 일반적인 글쓰기 능력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유지했다고 설명.
- 12/17 샤오미 EV가 2026년 2분기에 가격을 인상한 페이스리프트 SU7을 출시할 것이라는 추측 확산. 업데이트된 SU7은 약 2만위안 가격 인상이 예상되며, 테슬라 모델 3와 거의 동일한 가격대에서 경쟁하게 될 전망.
- 샤오미는 '사람, 차, 가정 전 생태계' 협력 파트너 대회에서 장기 연구개발 투자 계획을 발표. 샤오미는 향후 5년간 총 2,000억위안을 연구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며 장기적 목표는 글로벌 하드코어(핵심)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이라고 밝힘. 단기적으로는 2025년 샤오미의 R&D 투자액은 320억~33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에는 약 400억 위안 수준으로 추가 확대될 전망.

BYD(1211.HK): 오션 시리즈 신모델 출시 예고

- 12/15 BYD가 오션 시리즈의 신형 모델인 Seal 08 세단과 Sealion 08 SUV 공개를 예고했으며, 두 모델은 2026년 1분기에 공식 데뷔할 예정. 구체적인 사양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모델명으로 추측할 때 대형 세단과 대형 SUV에 해당할 가능성이 큼.

립모터(9863.HK): 창업자 부부 대규모 지분 매입

- 12/11 공시를 통해 창업자 주장밍과 특수관계자인 푸리촨 부부가 최근 회사 지분을 추가 매입했다고 발표. 창업자는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지분을 매입하였으며 최근 4개월간 립모터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음. 평균 매입가 50.5HKD로 총 215백만주를 시장에서 매수, 매입 규모는 총 1.1억HKD으로 확인. 이번 매입은 회사의 미래 발전에 대한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회사의 지속적, 안정적,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공공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힘.

샤오펑(9866.HK): 말레이시아 생산 착수, AI에 대한 낙관론 유지

- 12/15 샤오펑은 말레이시아의 EP Manufacturing Bhd(EPMB)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말레이시아에서의 현지 생산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다고 밝힘. 이번 프로젝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두 번째, 전 세계적으로는 세 번째 현지 생산 프로젝트로, 양산은 2026년부터 시작될 예정.

니오(9866.HK): 서브 브랜드 온보 중심 사업 다각화

- 니오의 서브 브랜드 온보는 배터리 용량을 두 배로 늘리는 이른바 '배터리 더블링' 이니셔티브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2,600개가 넘는 신규 배터리 팩을 배치했다고 발표. 2026년 1월 중순까지 총 8,000개 이상의 신규 배터리 팩 배치를 완료해 가용 배터리 용량을 두 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강조.
- 온보는 12/18 한정판 모델을 예고한 데 이어, L60 바이올렛 에디션을 공식 출시. 기본형대비 8,000위안, 약 3.87% 프리미엄이 붙은 모델로 총 666대 한정 생산되며 주문시 즉시 인도 가능.

배터리: 핵심 광물 정책 변화, 관련 주 강세

- 12/17 중국 리튬 광산이 집중되어 있는 이춘시 자연자원국이 <광산 자원법> 등 법규의 요구에 따라 27개 광산에 대한 채굴 허가증을 말소할 것으로 발표. 12/17 리튬 공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관련 주 강세 마감. Tianqi Lithium(9696.HK), Ganfeng Lithium(1772.HK) 각각 6.0%/4.9% 상승 마감.

CATL(3750.HK): 휴머노이드 도입으로 작업 효율성 증대

- CATL은 휴머노이드 로봇 전용 배터리팩 생산라인을 신설. CATL은 허난성 뤄양 제조 기지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적용한 배터리 팩 생산라인이 최근 가동을 시작했다고 발표하였으며 여러 핵심 공정에서 기존 인력을 대체했다고 밝힘. 해당 로봇은 배터리 커넥터 삽입과 같은 복잡하고 정밀한 작업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으며 근본적인 작업 효율과 품질 일관성 확보 문제를 개선.

중국 1등주 포트폴리오 현황

편입 종목	주간 수익률 (%)	PER (배)	ROE (%)	매출(YoY, %)		순이익(YoY, %)		EPS 성장률 (%)	EPS 변동률 (%p)	실적 발표일
				2024E	2025E	2024E	2025E			
텐센트(0700.HK)	(2.2)	19.4	21.0	13.8	10.7	14.9	13.9	40.2	0.3	2026-03-19
알리바바(BABA.US)	(5.5)	23.3	10.4	4.4	10.6	(12.6)	22.4	(33.5)	1.3	2026-02-20
징동(JD.US)	(2.9)	10.6	10.3	14.1	6.2	(41.8)	26.7	(37.9)	(0.2)	2026-03-06
트립닷컴(9961.HK)	1.4	11.1	19.0	16.2	13.8	86.5	(40.5)	86.7	0.0	2026-02-24
텐센트뮤직(TME.US)	(3.2)	19.5	14.1	15.1	12.6	66.2	(10.4)	46.0	(0.9)	2026-03-18
콰이쇼우(1024.HK)	(3.3)	12.5	25.0	12.0	9.3	17.9	16.1	45.7	0.0	2026-03-25
하이얼스마트홈(600690.CH)	1.7	12.1	17.4	8.2	5.5	12.8	9.9	13.2	0.0	2026-03-27
샤오미(1810.HK)	(6.8)	22.1	18.7	28.6	19.9	83.5	4.5	79.5	0.1	2026-03-18
레노버(0992.HK)	(3.8)	9.4	24.7	13.5	7.9	14.6	10.8	8.2	0.0	2026-02-16
팝마트(9992.HK)	(1.0)	18.7	71.5	185.4	35.1	296.3	36.7	290.8	(0.7)	2026-03-26
미니소(MNSO.US)	2.8	16.9	22.1	24.8	19.4	(13.9)	42.4	298.5	0.0	2026-03-20
BYD(1211.HK)	(5.3)	21.3	16.5	8.4	16.3	(10.4)	37.4	(14.7)	(0.2)	2026-03-24
샤오펑(9868.HK)	(6.0)	-	(4.4)	93.7	43.0	적지	흑자	적지	(0.7)	2026-03-18
CATL(300750.CH)	(5.1)	24.3	23.4	16.4	24.6	36.0	25.6	36.1	0.3	2026-03-16
양광전력(300274.CH)	(7.8)	22.6	31.9	23.2	18.5	35.9	16.8	37.4	(0.4)	2026-04-27
북방화창(002371.CH)	(2.6)	44.6	19.7	31.2	26.8	26.3	34.5	26.6	0.0	2026-04-27
SMIC(0981.HK)	(4.9)	96.2	3.3	15.5	20.5	43.4	47.0	65.4	0.0	2026-02-11
해광정보(688041.CH)	(3.5)	151.3	13.9	57.6	51.3	72.8	57.5	61.7	0.0	2026-03-02
통푸마이크로(002156.CH)	(3.8)	44.8	7.8	14.5	14.2	78.0	28.3	88.9	0.0	2026-04-13
폭스콘산업인터넷(601138.CH)	(5.6)	33.6	20.4	49.7	65.8	49.1	74.4	44.6	0.0	2026-04-29
중지쉬창(300308.CH)	(1.9)	60.0	40.8	57.5	93.4	107.6	95.7	103.7	0.1	2026-04-20
포니AI(PONY.US)	(1.0)	-	(24.4)	14.2	33.7	적지	적지	적지	0.5	2026-03-25
위라이드(WRD.US)	(2.1)	-	(21.2)	78.0	116.5	적지	적지	적자	-	2026-03-13
허사이테크(HSAI.US)	4.6	49.7	7.1	51.4	44.6	흑자	56.7	흑자	11.5	2026-03-10
호라이즌로보틱스(9660.HK)	(6.0)	-	(46.6)	50.8	67.8	적자	적지	적자	(0.4)	2026-03-23
킹소프트(688111.CH)	(0.3)	75.6	15.0	16.9	18.7	14.4	21.0	17.0	(0.1)	2026-03-19
중신증권(6030.HK)	(1.1)	13.0	9.7	(14.5)	7.9	30.3	10.7	38.4	0.0	2026-03-26
평균	(2.8)	35.3	13.6	33.4	30.2	45.8	27.7	61.0	0.4	

주1: PER, ROE, EPS 성장률은 전망치 기준, EPS 변동률은 전주대비 기준, 플랫폼 기업 Non-IFRS 기준, 홍콩 상장 종목은 반기 및 연간 실적만 발표,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예상치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혜, 송예지)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5년 12월 19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혜, 송예지)는 2025년 12월 19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